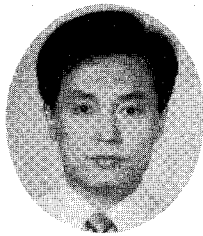




환경관리모범업체 견학기

百聞이 不如一見이라



천세철

〈해태제과(株)환경관리인〉

가을이다. 하늘은 높고 한강의 수심은 더욱 깊어 지며 코앞의 북한산은 훨씬 더 멀리만 보이는 것이 유독 나 혼자만의 기현상이던가! 그래서 옛 사람들은 가을색이 짙은 산과 강을 영탄 했던가 보다. 산업시찰이라는 대명분 아래 평소보다 일찍 발걸음을 내딛었으나 집결장소에는 벌써 신천지를 대하려는 설레임에 부푼 꿈을 간직한 많은 분들이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다.

잠시후 인원점검을 마친후 연합회 이회장님을 비롯한 여러직원의 환송을 받으며 우리의 리무진은 신도림역을 서서히 빠져 나갔다. 88도로에 접어들자 재담이 풍부한 김병순 감사의 사회로 장회장 인사말 및

각자 자기 소개를 시작하는데 좌중의 표정은 각양각색이라 어디에 초점을 두어 이 좌석을 지켜 나가야 할지 도무지 분간이 안서 어정쩡해 있는 가운데 중부고속도로로 접어든다.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울긋불긋함에 소시적으로 돌아가 센치해진 마음을 담배한대에 의지하고픈 충동을 느껴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 보았다. 와이셔츠 포켓에 나의 오른손이 몇번이고 왕복운동을 하는 것은 결코 격식은 아닐 것이다. 어느덧 이천 인터체인지로 접어든 우리는 대지 10만평위에 깨끗하고 산뜻하게 자리한 (주)진로의 정문을 통과하여 생산부장님과 견학 안내양의 환영을 받았다. 생산부장님의 설명을 빌자면 소주와 양주를 주로 생산하며 소주는 일 생산량이 280만병인데 근무인원은 500명 이나 된다니 인구밀도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부럽고, 생산 LINE의 공장 자동화 또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견학 안내양의 생산 LINE 소개를 거쳐 폐수처리장에 당도하니 우리 일행들은 벌써 각자 카메라의 셔터를 분주히 눌러대기 시작한다. 이층에 전망 좋게 자리한 넓직한 환경관리실의 중앙조정시스템 판넬 앞에서 진지하게 열변을 토하는 환경관리인의 말씀인즉 “환경관리과는 용수계, 폐수계, 대기 소음진동계의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수량 2400m³/

환경관리인. 1991.12

**이제 거듭나는 기회를
가져야 할 시간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행렬이 그 행위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꿈꾸었고 소망하였던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길이길이 후손에게도
축복의 땅으로 물려줄 수 있을
신명나는 행렬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일의 세병폐수 및 유리제조 폐수로서 BOD 400ppm, COD 250ppm, SS 300ppm, N-H 25ppm을 MLSS 5,000ppm, DO 2-3ppm의 표준활성오니 일반조건으로 운영되며 처리비용은 500원/TON이다.”는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용수관리 사항에 있어서 25개 부서의 각 생산 LINE별 유량계를 하나의 중앙판넬에 종합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이어서 양주 제조장으로 안내 되었다. 천여통의 양주가 담겨진 어둡고 칙칙한 오-크통 저장실 속은 술내음이 뻥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아 꼭 술독에 빠진 기분이었다. 후한 점심 대접을 받았다. 사내 내빈용 BAR의 멋들어진 분위기 속에서 와인을 곁들인 후식은 정말 훈훈하였다.

그 다음은 영동고속도로변에 위치한 현대전자(주)로 향하였다. 과연 맘모스 기업답게 정문부터가 웅장하여 위압감을 느꼈다. 견학실 앞에 차를 세우니 이상호 경기협회의 회장님을 위시하여 그 일행이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두팀이 합류하여 견학실로 안내 되었다. 환경관리 부장님과의 상견례가 있는 후 현대전자(주) 측에서 준비한 환경관리 현황을 담은 O.H.P 필름을 시청하는데 모두들 어둡속에서도 각자 필요한사항을 메모하느나 정신이 없다.

준비측에서 미리 이런부분에 관한 소책자를 준비했으면 금상첨화이런만 하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대지 20만평위에 12,000명이 근무 산업전자부품(컴퓨터, 공장자동화 및 통신기기, 자동차부장품)을 생산하며 환경관리부에 환경관리과, 환경보건과의 2개 과를 두고 불소폐수 400m³/일, 생활하수 3600m³/일을 오폐수 통합처리하고 방류수를 재이용하고 있었다.

대기집진시설 시설중 보일러에 전기집진 장치를 설치하여 상당히 신경쓰고 있음을 느꼈다. 그새에 해는 많이 기울어서쪽 하늘이 노르스름해져 간다. 환경관리부장님 이하 여러분의 배움을 받으며 우리의 리무진은 다음 기착지이며 숙소인 속리산으로 향했다. 저녁 8시경 각종 산채소를 곁들인 저녁식사 후 대화의 광장으로 전

부모여 1시간 반 정도의 토론 시간을 가졌는데 본 협의회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와 현행 환경제도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정말 이렇게 짧고 싱싱한 내용이 있는한 이 환경분야는 앞으로도 무한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다음날 마지막 방문예정지로 되어 있던 (주)고계는 그 회사 사장

상 견학이 어려워 오전에는 속리산 관광을 하고 상경길에 독립기념관을 거쳐 귀가 하도록 전체 합의를 하였지만 아쉬움이 따랐다. 본 협의회에서는 이번 행사를 위해 사전에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고 신경을 썼건만 이런 맹점이 돌출될줄 그 누군들 짐작이나 했으랴. 차기년도 행사는 좀 더 세심히 준비하여 이러한 전철은 다시는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제 거듭나는 기회를 가져야 할 시간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행렬이 그 행위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꿈꾸었고 소망하였던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길이길이 후손에게도 축복의 땅으로 물려줄 수 있을 신명나는 행렬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

불이익당한 환경관리인 구명운동 전개

광주·전남협의회(회장·김왕근)는 최근 양별규정으로 인해 환경관리인이 불이익조치를 받게 된 사건이 발생하자 이의 진상구명을 위한 자체조사단을 구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월초 지방 모일간지의 사회면에 산업폐기물의 불법매립사건이 밝혀지면서 부터다. 문제의 업체는 콘크리트 흙판류를 생산하는 삼원콘크리트로, 콘크리트 흙판성형 부산물 등의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사실이 밝혀지자 10월 21일자로 대표이사과 담당 관리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그런데 이 회사의 관리인은 위반사항이 적발되기 얼마전인 9월 20일자로 회사에서 법 규정상 '선임'(수질5종업체)된 자로 공무과에 소속되어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불법매립사실자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산업폐기물이 불법매립된 것은 그가 선임되기 이전에 매립된 것임에 불구하고 법정관리인이기때문에 고발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 것이었다. 협의회는 이 사건이 지면에 발표되자 10월 14일 긴급이사회를 소집, 회장단 5명으로 실태조사단을 구성하고 16일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와 같은 진상구명을 위한 사실조사를 마쳤다.

이어 17일에는 광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를, 18일

에는 광주지방검찰청 담당검사를 방문하여 2시간에 걸친 면담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조사단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 이번 관리인의 고발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고 단속 만능주의의 편협성과 업체의 범규위반 적발시 관리인의 실질적인 책임한계 규정의 필요성 등 양별규정과 지도단속에 대한 전반에 걸친 내용에 대한 협의를 나누었다.

특히 협의회는 관리인이 부당하게 불이익처분을 받을 경우 개인의 희생은 물론 이 영향이 다른 관리인들에게까지 파급되어 '이직률'을 높히는 원인제공을 하여 결국 환경보전업무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사건의 결말은 삼원콘크리트에게는 불법매립폐기물의 재이용에 행정처분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관리인은 무혐의 판정으로 매듭지어졌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이같은 관리인의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자구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임을 밝히며,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환경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이해없이 무려 15일간이나 집중적으로 계속된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의 자체를 촉구했다.